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일선선사 '一念廻光'

일선 선사는 출가 당시 입었던 누더기 한 벌로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 선사의 법명은 일선(一禪), 법자는 경성(敬聖), 법호는 휴옹(休翁), 선화자(禪和子).

선사는 성종 19년(1488) 12월 13일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11세에 부모님 두 분을 여의었다. 그 후 3년 동안 돌봐 주는 사람 없이 이 곳 저 곳을 떠돌아 다니다 경주 단석산에 주석하던 해산(海山) 선사의 눈에 들어 출가를 하게 되었다. 이 때 선사는 생(生)에 대하여 무상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으로 전한다.

세상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지라. 또한 오늘의 현실과 같은 혼란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전국의 승가는 구이지학(口耳之學)으로 세상에 뽐내며 자랑하는 부류 승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구이지학이란 수행승들의 말과 행동이 틀리고, 운수 납자인 양 이곳저곳 산수따라 찾아 다니고, 경론(經論)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일생을 졸면서 보내고, 굴 속에 들어 앉았어도 입으로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사는 진리의 바다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묘향산 문수암에 무문관(無門關)을 만들어 주먹크기의 구멍하나를 만들고는 사면 벽을 막고 이일일식(二日一食)과 소대변도 받아내는 활구선 수행을 시작하였다. 깨닫지 못하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서원한 것이다. 이러한 정진 3년 만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대오(大悟)하였다. 그 깨달음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일념회광(一念廻光)

趙州老露刀劍
조주노로도검
唱夢中說夢渴
창몽중설몽루

조주란 늙은이의 칼날이 드러나니
어허, 꿈속에서 꿈을 말함이라

선사의 오도송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사께서 추구하신 깨달음의 참구는 활구선이다.

界有成住壞空
계유성주괴공
念有生住異滅
념유생주이멸
身有生老病死
신유생노병사
無常之體無常
무상지체무상

유 · 무형 세계에는 이뤄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현상이 있고,

생각에는 생겨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현상이 있으며,

몸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이 있다.

무릇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사께서 참구하였던 활구선의 일념회광(一念廻光)이다. 마음의 본바탕이 일념으로 닦으면 밖으로 반조(反照)하는 것이다. 즉 일념성각(一念成覺 : 일념사이에 깨달음을 얻어 성불(成佛)이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선사의 깨침은, 염오무지(染汚無知)로서 마음의 진성(眞性)이 티끌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중생세계에 기용살활(機用殺活)로서 식업양성(息業養性)의 성태(聖胎 : 맑고 깨끗하고 성 스러운 씨앗)인 능관심(能觀心) 즉 누진의(漏盡意)인 번뇌의 더러움이 멸진(滅盡)되어 지혜(智慧)가 일념성각(一念成覺)되는 깨침을 전해주고 있다.

선사께서는 일념으로 활구선을 닦으면 미물까지도 마음의 본바탕이 회광(廻光)되고 반조(反照)되어 깨칠 수 있다고 하셨다. 물질만능에 오염되어 지옥의 바다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현세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선사의 활구선의 가르침으로 본다. 이렇게 지옥중생까지도 건질 수 있는 깨침을 제시해 놓으시고는 선사께서는 선조1년(1568) 2월 30일 좌탈했다.

묘향산 무문관 활구선 수행3년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보고 大悟

가까이서 뵌 큰스님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주지

"은혜 갚고 살면 본래성품 회복"

"똑 똑 똑…"

정오, 점심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들리자 석남사 스님들이 공양간으로 모였다. 조그만 후원(부엌) 겸 식당에는 두개의 상이 펼쳐져 있다. 주지스님은 따로 공양하시겠지 했는데 뜻밖에도 주지 정무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앞장서 신다. 스님은 잡곡밥과 소찬을 식판에 살풋 담아 상에 첫번째로 앉으셨다. 상좌스님 2명과 행자 2명, 그리고 사무장과 노보살 등이 식판을 들고 그 곁에 차례로 앉아 공양을 시작했다. 70이 넘은 노스님인데다 주지라면 따로 독상을 받고 공양을 할 만 한데도 스님은 '특별대우'를 마다하신다. 가끔 신도들이 귀한 꿀 같은 것을 가져와 "스님만 드십시오" 할 때도 스님은 "대중공양" 하고 손을 내저으신다.

스님은 지난해 10월 석남사로 오셨을 때 각 방마다 있던 개인 화장실을 다 없애버렸다. 이천 영월암 주지로 가셨을 때도 주지 방에 만들어놓은 수세식 화장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없애버렸다. "일반 해우소를 같이쓰면 되지 수세식 화장실은 따로 필요없어요. 또 그거 하천 오염됩니다. 그게 깨끗한 것 같아도 저 이천 시민들이 쓰는 저수지로 가요. 요즘 산골에 있는 암자에도 가보면 주지 혼자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같이 쓰면 되는데…"

수행자의 생활이 편하면 편할 수록 오히려 수행에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 정무스님의 지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대중은 무엇이든 차별없이 해야 한다는 평등의식 때문이다

스님의 평등의식은 부처님 오신날에도 발휘된다. 대부분의 절에서 연등 크기나 모양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매기는데 반해 정무스님이 계시는 절에서는 '봉축시주함'이라 하여 시주할 사람은 성의껏 내도록 하고 연등은 그냥 하나씩 나누어 준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은 시주를 안해도 연등을 받을 수 있다. 연등 크기 따라, 다는 장소 따라 가격을 매기는 행위를 "불교 망치는 짓"이라고 정무스님은 질색을 한다.

49재도 마찬가지다. 그냥 형편따라 내면 된다. 익숙하지 않은 신도들은 더 어려워 하며 "그래도 가격을 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내가 집의 형편을 어떻게 압니까? 가난한 이가 많이 해도 욕먹고 부자가 조금 해도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 형편껏 하세요." 스님의 진정을 알게 된 신도는 편한 마음으로 49재를 지낼 수 있다. 스님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사찰 재정이 거덜 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님은 "난 한푼 없어도 다 먹고 살 보물을 지니고 있다"며 개의치 않는다. 지급자족하고 절약해 살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스님은 격의가 없고 권위의식이 없으며 매우 검소한 생활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지키고 있다.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상좌들과 함께 채소밭 울력에 몰두하고 있는 정무스님(맨왼쪽).

> "수행자의 생활 편하면 편할수록 오히려 수행장애"

> 모든일 대중과 함께 어디가나 '효' 법문

맏상좌인 심경스님(반야사 주지)은 "은사스님의, 원칙을 지키는 철저함과 검소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혀를 내두른다"면서 다음과 같은 옛 일화를 들려주었다.

심경스님이 70년대 중반 용주사 재무로 있을 때 중앙교육원에 마침 교육이 있어 서울에 25일동안 머물게 되었다. 당시 용주사 주지를 맡고 있는 정무스님은 마침 승복을 만들 옷감을 사러 상좌 심경스님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다. 스님은 물어 물어 돌아다니며 가장 싼 옷감을 골라 샀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훨씬 지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연거퍼 났지만 정무스님은 그 흔한 자장면 한그릇 사줄 생각을 안하시는 듯 했다.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 구간으로 네 정류장을 걸어가 수원가는 버스를 타고 절에 도착해서야 스승과 제자는 국수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다. 심경스님은 "출가 수행자가 밖에서 외식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심과 동시에 외식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러셨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금이야 어느 절에서나 보편화가 되었지만 60년대나 70년대 신도들을 대상으로 절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수련회'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1968년 영주 포교당에서 여름수련회를 교계 최초로 개최했다. 이 일은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에 옮긴 것으로 이후 다른 사찰의 모범이 되었다.

"재가신도는 기복적 신앙모습에서 탈피, 수행을 해야 하고 승가는 스스로의 수행정진과 함께 재가의 수행을 도와야 한다"는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찰은 스님의 수행공간만이 아니라 신도들의 수련공간으로도 자리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또 교육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강조한다.

"근대 들어 불교정화 등 혼란의 와중에 스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못했기에 요즘의 승단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신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느냐고…' 물론 우스개소리겠지만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스님들의 잘못된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자'라고 정말로 불리우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사람,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에만 오면 다 불자인 줄 알고 집에 가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1년도

설악산 백담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설악산 백담사〉

△등등밥-염불만일회 동참하신 서른한 분 스님들 설산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작년에 전남 대원사 순례하였고 2001년도는 아래와 같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날은 건봉사 등공대 참배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2001년 8월 6일 ~ 8일 (2박 3일)
◇장 소 : 강원사 설악산 백담사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및 건봉사 등공대 성지순례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참 가 비 : 35,000원(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교 통 편 : 개인별 설악산 백담사 오후 2시 도착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안내

o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o 출발시간 : 2001년 8월 6일(월) 오전 7시
o 교통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 · 교통비 포함 6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6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